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차 수
			제142차
일 시	2026. 6. 8.(월) 16:00	장 소	본관 5층 시학혁신지원회의실
참 석 평 의 원	김경환, 박세훈, 서민숙, 박지영, 이재형, 박효근, 유현자, 이하늘, 박은택, 남승연, 배금학 (11명)	불 참 평 의 원	
배 석	전용한(교무연구처장), 김지원(AI융합교육혁신원장), 김성현(교수학습개발센터), 용한수(행정지원처장)	간사/서기	윤선욱 / 최민정
심 의 및 논의사항	<p>※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14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회의 소집에 대한 홈페이지 공지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상의 기간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보완 요구가 제기됨. 이에 심의·의결 안건의 결산안 자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이라는 대학평의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존중하고자, 제14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재개최함.</p> <p>1. 성원보고(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제3항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p>2. 개회선언 (김경환 의장)</p> <p>3. 안건심의 및 의결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1호. 학칙개정안(교육 책임 시수 변경 등)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자 : 전용한(교무연구처장)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교원 책임 시수를 줄이는 것(11학점→9학점)과 관련하여, 최근 학내에서 논의 중인 초과 강의로 인상 계획과 연계되어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전용한 교무연구처장은 시간강사 시간표 배정이 6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고 현재 짜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출이 없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향후 학과별 시간강사 감축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이번 학기에 한해 파일럿 테스트 형태로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변함. 본 책임 시수 조정은 '가치찾기' 과목이 각 학과 전공 등으로 재배정되면서 담당 교수가 지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사안이므로, 강사로 수당 인상이나 교수 간 배분 문제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안건임을 정리함. 전용한 교무연구처장은 초과강의로 인상 여부는 추후 모든 행정적 계산이 끝난 후 밝히겠다고 답변함.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간서명			
-----	---	---	---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차 수
제142차

□ 제2호. 2026학년도 교육과정(전공,교양,비교과) 편성 계획안 자문

- 보고자 : 전용한(교무연구처장), 김지원(AI융합교육혁신원장)
- 기존 인성교육 교과목이 폐지된 자리에 교양 필수 3학점 교과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전체 교수 및 구성원 간의 사전 동의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함. FIND 칼리지(교양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 교무연구처의 철저한 행정 관리를 주문하고, 직전 회의 시 제기되었던 구성원들의 우려와 피드백이 대학 본부 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에 전용한 교무연구처장은 향후 교육과정 수립 시 일방적인 하향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겠음. 다만, 기존 인성교육을 전공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은 '대학기본역량평가 인증'의 공식적인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였음을 부연 설명함.

○ 자문의견

-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자문 절차를 수용하여 통과함

□ 제3호. 2025회계연도 결산안 자문




- 보고자 : 용한수(행정지원처장)
- 사립학교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미분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함. 법인 사무국의 겸직 근무 중인 직원의 인건비(월급)가 법인회계에서 직접 집행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선지급된 후 연간 정산(1년에 한 번 보조비를 받는 방식) 형태로 보전받는 방식은 중대한 회계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결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평의위원회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함. 이에 용한수 행정지원처장은 직원들의 법인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현재 파견 직원에 대해 법인 사무국에서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여 연간 산출식(12개월 × 인원수)에 따라 학교가 정산받고 있다고 답변함. 이는 교육부 지도 지침에 맞춰 집행해 온 관례로 파악되나, 지적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알아보겠다고 답변함.

○ 자문의견

- 법인 업무 겸직 직원 급여 지급 방식의 적법성 논란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차기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시 세부 내용을 정식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결산안 자문을 원안대로 통과함

□ 제4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인 개방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 및 개방이사추천위

간서명			
-----	---	---	---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차 수
제142차

- 원회(이하 추천위) 위원 구성에 대해 논의함.
- 평의원 간 추천위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결과, '26년 3월 개정된 법인 일반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이사추천위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간 추천위원의 중복을 방지하기로 함. 이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 몫으로 양 추천위에 각 3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로 함.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열린광장에 교수협의회 명의로 개방이사 후보 추천 공고를 올린 것은 학생 및 직원 주체와의 사전 조율이 없어 소외감을 안겼다고 유감을 표했고 이에 김경환 의장은 사학혁신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학교 재정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이사 후보를 모집하고자 이사회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작성했을 뿐 학생이나 직원의 추천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명함. 학생회나 노조 등 각 주체별로 자유롭게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보충함
 - 위원 3인 선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이견이 제기되어 논의함.
 - ▶ 주장 1: 대학 구성원 3주체(교수, 직원, 학생)가 동참했던 상지학원의 역사성과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취지를 고려하여 투표 방식을 지양하고 3개 단체가 한 명씩 당연직 형태로 균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주장 2: 대학 구성원 3주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특정 구성원 단체의 지분(몫)을 우선하는 방식은 대학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직전 회의와 동일한 방식(자유 추천 후 투표를 통해 3인 선정)으로 진행하는 걸 주장함
 - 평의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학생 위원 2명과 직원 위원 2명은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투표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으며 이사회에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중도퇴장함
 - 평의원 추천을 통해 김경환, 박효근, 배금학 평의원 총 3명이 후보로 발의되었으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최종 선출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추천자 3인: 김경환, 박효근, 배금학
- 제5호. 일반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상지학원의 일반이사 선임을 위한 일반이사 위원 추천 요청에 따른 일반이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논의함
 - ▶ 주장: 대학 구성원 3주체가 균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학생위원이 후보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함
 - 평의원 추천을 통해 박세훈, 서민숙, 이하늘, 박은택, 이재형 평의원 총 5명이 후보로 발의되었으며,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박세훈, 서민숙, 이재형 평의원을 일반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함
 - 일반이사추천위원회 추천자 3인: 박세훈, 서민숙, 이재형

간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차 수
제142차

○ 조교 위원은 학생 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중도퇴장함

4. 기타사항

○ 제14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날인자는 김경환 의장과 서민숙, 박지영 의원으로 정함

5. 폐회선언 (김경환 의장)

6. 회의사진



확 인

의 장	김경환	(서명 또는 날인)	부의장	박효근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박세훈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서민숙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박지영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이재형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유현자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이하늘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박은택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남승연	(서명 또는 날인)	평의원	배금학	(서명 또는 날인)			

간서명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